

- 주요 뉴스: 미국 달러화 초강세 및 유가 급락,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
 - 독일 정부,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논의
 - 영란은행, 은행권에 경제여건 악화를 대비하도록 권고
 -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21년 7월 이후 최고치. 봉쇄 완화 등이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국채금리 하락으로 일부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0.2%], 달러화 강세[+1.3%],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하락 영향으로 기술주 등이 상승 주도
유로 Stoxx600지수는 유로화 약세, 독일 에너지 기업 구제금융 소식 등으로 2.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02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1.5%,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영향
독일은 역내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15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308.9원, +8.6원) 0.7% 상승, 한국 CDS 상승

		7/5일	7/4일	전일대비			7/5일	7/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31.4	휴장	0.16%	국채 금리 10y	미국	2.81%	휴장	-7bp
	유럽	400.68	409.31	-2.11%		독일	1.18%	1.33%	-15bp
	중국	3,404.0	3,405.4	-0.04%	CDS 5y	한국	55bp	54bp	1bp
	일본	26,423	26,154	1.03%		중국	87bp	86bp	1bp
	한국	2,341.8	2,300.3	1.80%	위험 지표	EMBI+	-	458	-
환율	달러지수	106.51	105.14	1.30%		VIX	27.54	휴장	0.04%
	유로화	1.0266	1.0422	-1.50%		WTI유	99.50	휴장	-8.24%
	엔화	135.85	135.62	-0.17%	원자재	구리	342.5	휴장	-5.36%
	위안화	6.7197	6.7006	-0.28%		금	1,764.8	1,808.2	-2.40%
	원화	1,300.3	1,297.1	-0.2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달러화 초강세 및 유가 급락, 경기침체 우려가 반영

- 7/5일(미국 현지시각) 달러화지수(106.5 +1.3%)는 '02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달러화 매수가 증가. 달러화는 통상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 및 스위스프랑화 대비로도 강세
- 특히 유로화 가치(달러당 1.03유로)가 달러화와의 패리티(등가)에 근접하며 '20년래 최저 수준. 이는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로존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불안 등에 기인
-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등을 고려 시 달러화 강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 또한 미국이 에너지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과 위험을 대비한 헤지 수요 등도 달러화 강세에 일조
- 한편 이날 배럴당 WTI 가격이 급락(99.50달러 -8.2%)하며 5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하회. 이는 향후 경기침체 등으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영향. 최근 원유 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하락
- 중국이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제 봉쇄 완화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유발. 다만 노르웨이의 유전 파업, 리비아에서의 공급 혼란은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과 중국, 거시경제 여건 및 글로벌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

- 중국 정부는 류허 부총리와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거시정책 협력을 위한 건설적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 이를 통해 미국의 자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에 우려를 피력. 옐런 장관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경제 영향 등을 언급

■ 미국 6월 물류지표, 하반기 경기둔화 신호를 발신

- 공급망 내 압력(pressure)을 반영하는 물류담당자지수(LMI)가 6월에 65를 나타내 '20년 7월 이후 최저. 운송비용 감소 등이 원인. 최근 운송능력 대비 운송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3개월에 비해 전반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

■ 미국 5월 공장수주, 전월비 증가. 양호한 제품수요 등에 기인

- 해당 수주는 전월비 1.6% 늘어 4월(0.7%) 및 예상치(0.5%) 상회. 세부항목 가운데 주요 금속 및 기계는 증가한 반면 전자장비 등은 감소. 한편 근원 자본재 수주(0.8%)는 국내 제품수요가 아직 긍정적이라는 신호를 발신

■ 독일 정부,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논의

-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기업 Uniper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 구제금융 규모는 90억유로 내외로 추정. 하백 경제장관은 가스시장 불안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영란은행, 은행권에 경제여건 악화를 대비하도록 권고

-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영국 및 세계경제 전망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 국내 은행들은 자본비율은 양호하여 경제여건이 악화되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시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

■ 중국 정부, 경기부양을 위해 5000억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

- 최근 성장 둔화 우려가 확산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 이번 투자를 위한 자금은 3/4분기에 마련될 전망. 다만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중국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21년 7월 이후 최고치. 봉쇄 완화 등이 반영

- 해당 PMI는 54.5로 전월(41.4) 대비 큰 폭 상승. 확장의 기준인 50을 상회한 것 역시 2월 이후 처음. 세부항목 가운데 봉쇄 완화 영향으로 수요가 회복되었으나 고용은 여전히 부진. 이는 기업이 아직 신규 고용확대에 신중하다는 의미

■ 호주 중앙은행, 정책금리 0.5%p 인상.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의지를 시사

-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더 이상 필요없다는 의사를 표명. 로우 총재는 최근 실업률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 여건이 양호하여 경제가 금리상승의 영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6 현지시각 기준)

- 6월 FOMC 의사록 공개,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강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물가안정 노력,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제어가 중요 - WSJ

(Why Consumers' Inflation Psychology Is Stoking Anxiety at the Fed)

-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이유는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이 목적. 높은 물가상승률은 주요 경제주체의 행동에 왜곡을 초래하여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유인 중 하나
- 노무라의 Robert Dent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가계의 단기 물가상승 기대가 장기 물가상승 기대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만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을 통한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중국 수입품 관련 관세 인하 검토, 물가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 블룸버그

(Biden Will Get Little Inflation Relief If He Eases China Tariffs)

- 바이든 정부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중국 수입품 관련 관세의 일부 철회를 고려. 하지만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되는 생활용품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 오히려 주거비,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보다 심각한 원인
- Barclays도 관세 철폐가 적용될 수 있는 중국산 수입품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물가하락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 실제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관세 철폐 적용 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락 수준은 0.3%p 그칠 것으로 추산

■ 미국 증시, 기업실적 부진 관련 대비가 요구 - 블룸버그

(Corporate Profits May Be the Next Thing to Break)

■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 현실화 가능성 낮지만 이탈리아 은행권은 시험대에 직면 - WSJ

(‘Doom Loop’ Fears Are Putting Italian Banks to the Test)

■ 미국 가계의 건전성, 높은 수준의 고용 지속 여부가 관건 - 블룸버그

(Consumer Debt Isn't Stressing Banks — Yet)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